

출판인과 문화인의 '거리'

허희성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수석연구위원

오늘날 출판사업은 문화사업이고 출판인은 문화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출판인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출판인에 있어서 과연 문화인으로 자부할 수 있는 궁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여기서 문화인 이란 어려운 학술상의 정의나 개념에 따르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필자에게는 그렇게 분석할 능력도 없다. 다만 일반의 상식적인 견지에서 볼 때 문화인이란 올바른 양식과 윤리·도덕관을 가지고서 법의 금지나 타인의 제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행위와 자체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문화인을 이렇게 본다면 요즘 출판인들에게는 문화인으로서 궁지를 망각한 사례가 허다하다. 첫째로 면 과거사는 그만두고라도 지난 연말과 금년 연초 「소설 동의보감」이 최대의 베스트셀러가 되자 이를 약간 수정·복사한 「허준과 동의보감」, 그리고 「소설 어린이 동의보감」, 등이 속출하여 표절의 시비가 일어났으며, 또한 모출판사가 5년전부터 합법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보호주의자」를 이 작품이 노벨문학상 수상작품으로 발표되자마자 다른 출판사가 약간의 수정만으로 그대로 복사 출판하여 '베껴먹기' 시비도 일어나고 있다.

이와같은 사례는 비록 출판물이 시장경제의 체제에 따르는 상품이지만 단순한 일반상품이 아니라 문화상품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돈벌이가 된다면 무엇이든지 출판한다는 배급주의의 극단적인 표현인 것이다. 이와같이 돈의 노예가 된 출판인들이 어떻게 문화인으로 자처할 수 있겠는가.

두번째, 연초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에서 집계한 작년 한해동안의 저작권침해사례가 108건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이 숫자는 그 협회의 회원저작물에 한하는 것이므로 협회의 회원이 아닌 사람의 것도 합친다면 더 많아질 것이다. 또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출판사 상호간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출판사의 기득권도 무시하는 풍토이니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인의 법적 권리인 물론 계약적 사회적 권리도 무시하는 출판인이 어떻게 문화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세번째는 우리나라 출판인들은 새로운 문화의 전달에만 급급하고 수준높은 기존문화의 보전이나 정신문화의 보급에는 인색하다. 출판이 문화사업으로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화의 전달만이 아니라 기존문화의 보전과 정신문화의 보급도 중요한 것이다. 이것 역시 배급적인 영리주의와 결부되어 대중의 기호에 영합하는 일시적이고 저급한 문화전달에만 치중하고 대중을 계도하고 정신적인 순화제가 될 출판물은 대중의 인기가 없다고 외면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출판이 양적인 면에서는 세계10위권 이내지만 질적수준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출판문화인들도 지금부터는 출판문화의 질적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과거에는 문화보급의 대중이 출판물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텔레비전 등 영상매체나 컴퓨터 등이 출판물을 앞지르고 있다. 출판물은 읽어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관념적 사고적인 힘을 길러내지만 많은 시간과 정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에 영상매체 등은 즉각적이고便宜하게 흥미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요즘 어린이들은 장시간의 독서보다便宜하고 흥미있는 영상매체를 더 좋아한다. 이것은 앞으로 독서인구를 영상매체에 빼앗기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출판계의 면 장래를 생각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출판인이 문화인으로서 궁지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영리추구에 안주하지 말고 출판계의 혁신과 함께 문화의 질적 향상과 면 장래를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출판제널

THE KOREAN PUBLISHING JOURNAL, biweekly

1992년 3월 5일 제101호
격주간·매월 5,20일 발행

뉴스 2 일산출판문화산업단지 정기총회·외

표지 4 「신라고분연구」 낸 최병현 교수

전문가가 읽은 「신라고분연구」 — 지건길

초점 6 출판물도 이젠 텔레비전 광고시대

소특집/사전 8 정신문화연구원의 「민족문화대백과사전」

9 한국학 전문사전, 어떤 것들 나와 있나

10 우리나라 백과사전 출판의 역사와 현황

서평 12 이상옥 「이효석, 문학과 생애」 — 이상섭

김 탁 「증산교학」 — 강돈구

13 이영철 「진리와 해석」 — 임일환

루이에 「사진의 제국」 — 김택현

14 박덕규 「문학과 탐색의 정신」 — 김경수

김준오 「도시시와 해체시」 — 반경환

화제의 책 15 이중한 지음 「도서목록개발기초연구」 · 외

출판화제 16 단행본시장에 대형출판사들 속속 참여

17 그리운 산하, 북한의 풍물 다룬 책 는다

연재기획 18 도서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지상캠페인 ③

해외기고 20 인도의 책과 책방, 그리고 사서들 — 이재숙

리포트 21 오늘 우리에게 이광수는 누구인가

이 책 그 사람 22 「아리수리고마」 낸 천소영교수

「아이를 잘만드는 여자」 낸 김영희씨

23 「봄을 기다리는 아이들」 낸 송명숙씨

「하얀나라 깨만나라」 낸 윤상일씨

해외출판 24 실용성에 눈돌리는 프랑스의 사전 — 이희재

세계의 책 26 금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보어 傳記

28 독자서평

30 화제의 신간

32 신간안내

40 200자 안내

42 신간목록

48 프리즘/재미있는 책이야기/정기구독안내

표지사진 / 김홍진